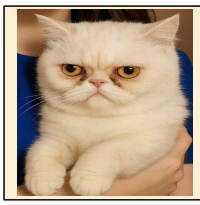	창체	감정을 표현한 글쓰기
	공부한 날짜: 2026.3.4.(수) 1-2교시	리야드한국학교 학년 이름:

5, 6학년 얘들아!
매주 창체 시간에는 글쓰기 한 편씩 쓰려고 해. (꾸준히 쓰다 보면 감정그림책 한 권이 완성되지!)
감정을 글로 쓰는 건 '마음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야.
기분 나빠요 대신 서운해요, 억울해요, 머쓱해요 처럼 다양한 낱말로 구체적인 표현을 해보자.
내 마음이 왜 그런지 훨씬 잘 알게 될 거야!
내 기분을 잘 설명할 수 있게 되면, 어떤 힘든 마음이 찾아와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

#줄 공책에 15줄 이상, 아래 예시 낱말 중 3개 이상

유쾌하다 반갑다 설레다 찜찜하다 놀라다 흐뭇하다 답답하다

행복하다 뿌듯하다 지루하다 미안하다 심심하다 무섭다 짜증나다

기대된다 부끄럽다 행복하다 분하다 황당하다 자랑스럽다 고맙다

속상하다 그립다 신기하다 편안하다 기쁘다 피곤하다 불쌍하다

밉다 두렵다 뿌듯하다 쓸쓸하다 서운하다 당황스럽다 후회하다

짜릿하다 시원하다 안타깝다 상쾌하다 흐뭇하다 불쾌하다 억울하다

허탈하다 섭섭하다 외롭다 불안하다 감동적이다 재미있다 슬프다